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5분 정도 걸으면 지하철역도 있어서 홈스테이에서 다니기에는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서브웨이, 카페, 자판기 등 편의시설이 있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시기가 랑가라 대학의 개강시기와 겹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볼 수 있었고, 영어를 들을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테스트를 통해 레벨을 나누지 않고 전부 다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끼리 수업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듣는 것과 비슷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업은 교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캐나다 밴쿠버의 문화와 영어회화 스킬, 숙어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일에 한 번 정도 과제를 주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고 빨리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내주십니다. 또한 캐나다 문화에 대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2~3일에 한번 아쿠아리움, 박물관, 컬링 등 활동이 있습니다. 컬링의 경우 자신이 장갑을 챙겨야 하고 편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밴쿠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과 같은 곳은 상관없지만 Capilano Bridge, Granville island 같은 곳은 실외이기 때문에 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은 학교에서 내주고, 3시 이후부터는 자유이기 때문에 더 머무르고 싶으면 머무르거나 하면 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밴쿠버는 겨울에 눈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기온은 한국 겨울 날씨보다 높아도 체감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자켓이나 내복 같은 껴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챙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겨울에는 오후 5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가면 집 주변이 조용해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밴쿠버에 홈리스가 많은데 말을 걸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제 홈스테이는 학교와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것이 좋았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께서도 가족행사에 초대해주시는 등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규칙은 홈스테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홈스테이 부모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이 지하였고 보일러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달라 조금 추웠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빵이나 씨리얼을 먹고 점심은 전날 홈스테이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직접 싸가거나 샌드위치를 만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대부분 홈스테이에서 직접 싸주는데 제 홈스테이는 제가 직접 싸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갔으며 밖에서 먹을 때는 홈스테이 맘에게 항상 연락을 하였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버스카드를 제공해 주어 교통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은 길지 않지만 아침 등교 시간에는 버스가 꽉 차서 못 타는 경우가 있어 조금 일찍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비	190만원	
유심	5만원	
환전	50만원	
카드	10만원	
여행자 보험	3만 8천원	
합계	258만 8천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겨울의 경우 비,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두꺼운 옷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캐리어에 짐을 얼마 넣지 않았는데도 꽉 차서 옷을 많이 못 가지고 간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꺼운 옷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껴입을 수 있는 얇은 니트를 많이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의 경우 컨버스는 비나 눈에 쉽게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신발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스테이일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홈스테이 가족을 위해 한국적인 선물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가면 어색할 수 있는데 선물을 주면서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편지를 쓸 경우 밴쿠버의 편지지가 비싸고 딱히 이쁘지도 않아서 한국에서 사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에 챙겨가야 할 물건들은 출국 전에 홈스테이 메일로 직접 물어보시고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여러 음식점을 방문하면서, 홈스테이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

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언제 또 내가 외국의 집에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조리 있게 잘 쓰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밴쿠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피곤하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Granville island 안에 있는 Public Market 인데 디저트, 빵, 과일, 채소 등 많은 것을 파는 가게였다.



The cannibal café
처음으로 밴쿠버의 유명한 음식인 푸틴을 먹었다



Strathcona park
처음으로 친구들과 공원을 갔다 하늘과
풍경은 마음이 편안해질 만큼 너무나도
이뻐다



Kitsilano beach
하늘이 정말 가까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날이 한국에서 설날이어서
친구들과 컵케익을 사서 함께 축하하였다



Vancouver aquarium
많은 동물들과 동물쇼 등을 볼 수 있었다



Sunset beach
매일 비가왔다가 이 날 비가 안와서
처음으로 Sunset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예뻐다